



나무처럼

이현주 글 · 그림 / 책고래출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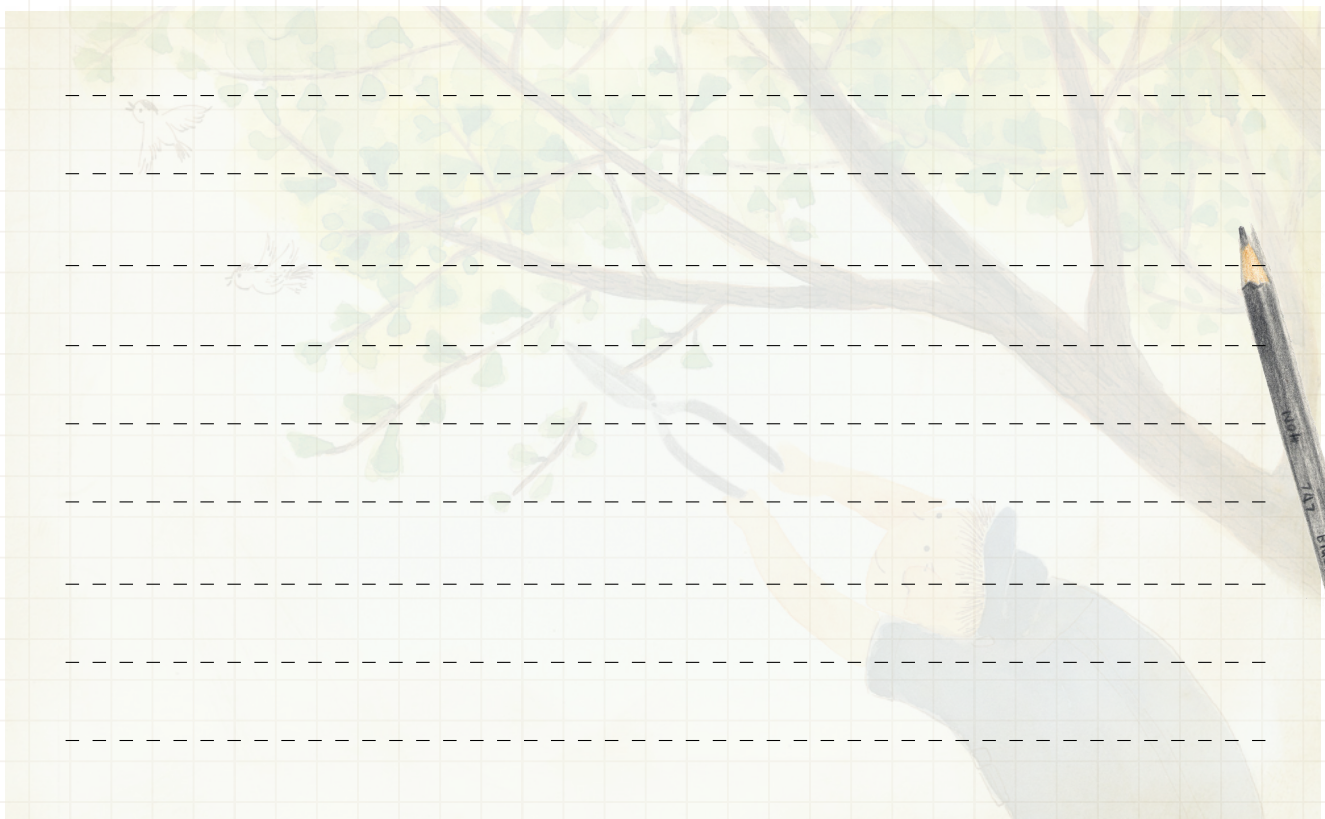


은행나무의 성장을 통해 보는 작가의 삶, 그리고 우리의 삶

넓은 5층 아파트에 이사 온 은행나무가 자라는 과정, 시간의 힘을 보여 주는 그림책입니다. 1층 높이였던 나무가 점점 키가 자라 2층, 3층, 4층, 5층까지 자라면서 보고, 듣고, 느낀 이야기를 담담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이야기는 나무의 성장담이지만, 좀 더 깊게 글과 그림을 읽어 나가다 보면 그것이 작가의 자전적인 이야기임을 눈치 챌 수 있습니다. ‘창문’을 통해 세상을 내다보는 시간, 홀로 견뎌내야 할 ‘밤’의 시간.... 더불어 독자들은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 내고 있는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은행나무가 마침내 하늘을 향해 가지를 쭉 뻗었을 때, 다시 한 번 ‘희망’을 떠올리게 됩니다.

《나무처럼》의 은행나무는 조용히 말을 건넵니다. 넓은 아파트 너머에 사는 저 나무들처럼, 우리 곁에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수많은 이웃들이 있다고 말이지요. ‘홀로’가 아니라 ‘함께’ 삶을 살아 나가자고 말입니다.

- 01 어느 집 앞이나 나무 한 그루 있지요. 하지만 혹시 그 나무를 유심히 들여다 본 적이 있나요? 어느 하루 집 앞이나 나무를 유심히 들여다 본 적이 있을 지도 몰라요. 하지만 나무는 언제나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본답니다. 나무처럼의 나무가 우리에게 보내온 편지처럼, 우리도 우리가 아는 나무에게 편지를 써 보세요. (독후 이해 활동)



02 나무는 키가 아주 커요. 잎도 무성하지요. 하지만 처음부터 커다란 나무였을까요? 커다란, 아주 커다란 나무도 애초에는 아주아주 작은 씨앗으로부터 시작해요. 다음은 어떤 나무의 씨앗일까요?
(탐구 영역)

- 1) 가을이 되면 잎이 빨갛게 변해.
- 2) 내 잎사귀는 아기 손처럼 생겼지.
- 3) 씨앗이 떨어질 때 모양이 헬리콥터처럼 뱅그르르 돌아.
- 4) 내 이름은 OO나무야. 나는 누굴까?



03 나무처럼의 나무는 잎이 무성해요. 우리는 겨울나무 가지로 감사 나무 모빌을 만들어 보아요.
(미술영역 및 심성 활동)

준비물 : 겨울나무 가지(20센티 미만), 실, 바늘, 리본, 펀치, 가위, 색종이



- 1) 20센티 내외 짧은 겨울나무 가지를 주워, 잔가지를 잘라냅니다.
- 2) 가운데 균형을 맞춰 굵은 리본을 한번 묶고 7센치 정도 간격을 두고 위쪽 에 리본 모양을 묶습니다.
- 3) 색종이로 다양한 모양의 잎을 만듭니다.
- 4) 색종이로 만든 잎에 감사한 일을 하나씩 적습니다.
- 5) 감사한 일을 적은 잎을 7개 내외 만들면, 잎의 끝을 바느질 하여 실로 고정합니다.
- 6) 실을 고정한 잎은 5센치미터에서 10센치미터 길이로 균형을 맞춰가며 나뭇가지에 매달입니다.

